

4·11 총선 5대 이슈

6 여성의원 나올까

지역구출신 역대 김윤덕·김경천 2명뿐
여야 공천 확대 목소리... 현실화 미지수

19대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가운데 하나는 지역 여성 정치인의 국회 진출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광주·전남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성의 지역구 공천이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를 15% 이상 공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 산하에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설치, 당헌·당규 제·개정작업과 공천 실현 방안, 여성인재 영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여성 공천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20석의 의석이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한 2곳의 지역구에 여성이 공천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당장, 민주당의 공천 구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여성 후보가 공천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통합진보당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고 해도 최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현실이다.

여기에 여성 정치인들의 인재풀도 그리 넓지 않다. 9일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4월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된 여성 정치인은 3명(민주당 1명, 통합진보당 2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과감한 인재 영입과 전략공천 카드를 통해 지역의 여성 인재들을 발탁,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여성 비례대표 선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적 고려를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과 통합진보당 등도 호남과 여성에 대한 진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광주·전남지역 여성 정치인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진보 본선 경쟁력 낮아 입성 장담 못해
민주 인재영입...비례대표 전진배치 고려

덕 의원(신민당)과 16대 국회 광주 동구의 김경천 의원(민주당)이다. 광주·전남지역 출신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이런 가운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성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공천권 쥐었다



무등야구장 천연잔디 공사 돌입
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야구장에서 잔디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이번 공사는 바닥공사 및 잔디 식재, 활착 등을 거쳐 진행되며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총 12억 원이 투입된다.

9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야구장에서 잔디 교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이번 공사는 바닥공사 및 잔디 식재, 활착 등을 거쳐 진행되며 3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비는 총 12억 원이 투입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나라, 총선 완전국민경선 80%·전략공천 20% 확정

한나라당은 9일 전체 지역구 후보자의 80%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으로, 20%를 전략공천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대의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인 국민이 당내 경선에 참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대통령을 위해 각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경선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동시에 경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체육관이 아닌 투표소 투표로 경선을 진행하며 ▲‘역(逆)선택’

방지를 위해 각 정당이 같은 날 경선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당원·일반당원·일반선거인단 등에 각각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국민경선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공천의 경우에는 호남을 비롯한 당 취약지역과 함께 서울 강남벨트 및 일부 영남권 등 이른바 ‘한나라 텃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비대위는 현 비례대표 의원을 한나라당 관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비례대표 의원 자체가 한차례 특혜였던 만큼 ‘이중 특혜’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대위는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국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별 SNS 활동을 평가하는 ‘SNS 역량지수’를 개발, 공천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무소속 바람 부나

정용화, 한나라 탈당... 무소속 출마자들과 연대 모색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전남 지역 발전 특별위원장이 9일 한나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일부 무소속 후보들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오는 4월 총선에 ‘무소속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두 번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메리 없

는 의침이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일당 독재체제의 무능과 오만에 분노하는 광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두 번의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으나 메리 없

으로 호남 포용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쇠신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호남은 없었다”고 박 위원장 및 비대위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지역정가에서는 정 위원장의 탈당 배경으로 광주·전남 민심이 한나라당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한나라당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해 봐야 표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 이외에도 광주지역 제19대 총선 출마 예정자 중 일부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박현 전 청와대 행정관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의지를 굳혔고, 서구 을에 출마한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도 일찌감치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오는 12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 배경을 설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북 각 출마를 준비중인 오형근 성평화와 원장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무소속 후보들 간 연대를 위한 준비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 무소속 후보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을수록 풀이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

JOYTRAVEL 234-3222. 12/29~1/22 총8회. 세부 비리조트, 세부시티, 세부 모네펠리조트, 세부 상그릴리조트.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369,000, 489,000, 549,000, 599,000, 399,000, 969,000. 제주도 여행 3일! 목포-제주도, 장흥-제주도, 광주-제주도.

세계 자연문화 유산이 빛나는 앙코르와 캄보디아!!. 무안-씨엠피 전세기 (12/24~ 2/28 총 20회). 씨엠피 3박4일, 씨엠피 3박5일. 겨울에 떠나는 중국여행!!.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통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법제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각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성당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